| 현불 논단 |

'베삭데이' 국제포교에 활용하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韓불교, 국제포교 사찰 창건 '우선'
해외서 더 힘들고 어려운 寺 설립
국제행사 참여 통해 韓불교 알려야

남방불교 부처님오신날인 '베삭데이'
UN 기념일 공식 지정돼 매년 개최
16회째 행사 베트남서 성황리 열려
전 세계 105개 국가서 1,050명 참가

한국불교, 개인 차원 참여에 머물러
UN 베삭데이 국제포교의 장 인식해
주요 종단 대표자 적극 참여 고려를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제포교라면 외국에 한국 스님과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한국불교를 외국에 전하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찰 창건이 녹록지 않은 일인데 외국에서 사찰을 창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야 두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불교의 신도를 늘리기에 앞서 한국불교를 외국에 알리고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보다 많은 국제포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의 남방불교는 물론 같은 북방불교인 티베트,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도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를 극복을 위해서 한국불교가 국제적인 불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베삭데이(Vesak Day)'는 주목할 만하다.

베삭데이는 흔히 베삭으로 불린다. 베삭은 부처님의 탄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남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로 이해할 수 있으며, UN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다. 남방불교권의 각국은 개별적으로 베삭데이 행사를 열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개최국을 공식 지정하여 국제 행사인 '유엔 베삭데이(UN Vesak Day)'를 봉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UN이 지정한 공식 행사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진다.

2019년 올해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제16회 유엔 베삭데이가 개최되었다. 공식 명칭은 'THE 16th UN DAY OF VESAK 2019'였다. 공식 행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첫날인 5월 12일에는 개막식이, 13일에는 국제학술대회가, 14일에는 폐막식이 있었다. 매일 행사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주최측 관계자에 의하면, 105개 국가에서 1,050명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자국민은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12일 개막식에는 각국에서 참가한 수상과 총리 그리고 불교지도자 등 귀빈들의 인사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져 행사의 격(格)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3일 국제학술대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유에 대한 불교적 접근'이라는 유엔이 지정한 대주제 아래 5개의 세부분과가 구성되었는데, 하루 종일 학자들과 청중들이 열띤 토론 속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14일 폐막식은 오전에 주최 측의 행사 성과 보고로 마무리 되었으며, 폐막식 이후에는 베트남 여행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베삭데이 기간 중 야간에는 베트남 공영방송의 생중계로 공연과 축제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매우 한정된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 열린 유엔 베삭데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에 대한 한국불교의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유엔 베삭데이를 남방불교의 국가들이 주최하는 행사이기에 한국불교와는 별반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국불교가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교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올해 유엔 베삭데이를 비롯한 기존의 행사에 한국불교계가 불참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단적 참여에 있어서도 여타의 국가에 비하여 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유엔 베삭데이를 국제교류와 국제포교의 장으로 인식하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종단의 책임자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화장품에 바다는 아프다

'Face to Fish'라는 캠페인이 있다. '물고기와 대면하다'는 뜻의 이 캠페인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화장품과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양 생물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했던 남편 덕에 오래 전부터 천연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을 사용해 왔다. 좋지 않은 성분이 든 화장품은 '독'과 같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에 인공적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독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은 해 왔다. 그러나 그건 사람에게, 사람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바다나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는 못했다.

그런데 물고기와 얼굴을 맞댄 그림이 그려진 'Face to fish' 캠페인은 화장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중에서도 '스크럽제'라는 미세 알갱이의 영향은 무시무시했다. 스크럽제는 세안제, 치약 등에 쓰이는 미세한 알갱이로 플라스틱 성분이 대부분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10분의 1 정도 크기인 미세 알갱이들은 화장품 한 개에 35만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워낙 미세하다 보니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침전해 하수 슬러지 같은 유기질 비료로 많이 쓰여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독성을 흡수한 채로 해양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8조 개 정도, 즉 테니스장 300개 정도를 뒤덮을 수 있는 알갱이가 쏟아져 하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 정도라니 당장 화장을 멈추고 싶을 지경이다. "엄마 화장하지 마세요. 안 한 게 더 이뻐요." 내가 얼굴에 뭐라도 바를라치면 늘 잔소리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을 지경이다.

여름이 오고 있으니 화장은 그만두고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말까?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도 결코 바다나 물고기에 안전하지 않다. 하와이 주 정부는 2021년부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들어간 차단제가 금지 대상인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70%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화학성분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산호를 죽이고 어류의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화장도 못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말아야 할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에 무방비인 지금 그러기는 어렵다. 결국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없는 화장품을 꼼꼼히 살피고 고르는 게 필요하다. 성분을 살펴보고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같은 광물질 성분이면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또한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이 여름을 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을 될 것이다.

나를 꾸미고 보호하는 일이 지구를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화장품의 선택과 사용에서 신중해져야겠다. 화장품을 바르는 짧은 시간, 거울 속에서 지구와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을 마주하며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진정한 화장법을 찾게 되길 마음 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도반HC 책임경영제 성과 기대한다

조계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며 책임경영제를 강화했다. 기존 도반HC 내 사업부서를 자회사와 병합해 자회사를 통한 사업전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반HC는 ㈜도반CA, ㈜조계종출판사,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등 4개의 자회사를 바탕으로 수익창출에 나선다.

도반HC는 2017년 3월 출범 당시 보유자본 50억원,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비전은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은 사업지주회사를 통한 영업활동을 "물과 달력 장사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불교계에서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들도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탰다. 이로 인해 도반HC는 사업 확장에 앞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대중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도반HC가 수익을 승려복지기금 마련 등 조계종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면서부터다. 그 덕분에 조계종은 현재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조계종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다양한 전법·포교를 천명한 만큼 도반HC에 거는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도반HC는 불교계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다. 일반사회 영역으로 진출,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꾸준한 노력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동문, 재학생 네트워크 강화하자

전국 각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재건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 온다. 캠퍼스에 새로운 불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제주교대에 이어 서울교대까지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의기투합했다. 선배들은 자신들이 학창시절 느꼈던 추억을 후배들도 함께 영위하길 바란다. 불교를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순례하며 쌓은 인연이 지난 세월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학창 시절 동기들과 함께 불교공부를 한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예전처럼 불심이 깊지는 않다. 바쁜 학업과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등 불교신행보다 전통문화 자체에 관심이 많아 불교를 배우고자 한다. 이들을 불자로 이끌어 주는 것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나 지도교수만의 역할이 아니다. 바로 졸업한 동문선배들의 역할이다.

불교는 인생의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다. 삶의 철학을 배우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을 만나 도반으로 함께 성장한다.

불교학생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청년불교 재건의 꿈은 멀지 않다. 굳이 하나하나 모임에 데려가 가르쳐가며 이끌지 않아도 된다. 서울교대의 사례처럼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든지, 선배들이 명사 섭외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주는 큰바위 얼굴 같은 선배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 불교계, 특히 불교학생회에서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관계 설정이 미흡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련 총동문회의 관계개선부터 시작해, 현역 대학생들과 선배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